2016.7.15. No.23

TRADE BRIEF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통상연구실
민 경 실 연구원 02-6000-5498, ksmin23@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영향과 수출확대 방안

우리나라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콜롬비아 FTA가 2016년 7월 15일 발효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4대 경제대국으로 한국은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중남미 국가와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떠오르는 유망시장인 중남미 대륙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등 1차산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 발효가 양국의 무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서, 한국은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01. 한 · 콜롬비아 FTA 2016년 7월 15일 발효

◉ 한·콜롬비아 FTA가 서명 후 3년 5개월만인 2016년 7월 15일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성사되었음

한국의 FTA 추진 현황(2016년 기준)

발효(15건, 52개국)	협상중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신규)	한중일, RCEP(16), 중미(SIECA, 6), 에콰도르, 이스라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1]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임

- 콜롬비아는 현재까지 미국, EU, MERCOSUR, 멕시코, 칠레, 캐나다 등과 총 11건의 FTA를 발효했으며, '16.5월 태평양동맹 국가 간 자유무역 정식 발효

콜롬비아의 FTA 추진 현황(2016년 기준)

발효	서명	협상중
안데안공동체(CAN)*(1969), 멕시코(1995), MERCOSUR(6개국, 2005), 칠레(2009), Northern Triangle**(3개국, 2009), EFTA(2011), 캐나다(2011), 미국(2012), EU(2013), 태평양동맹(2016), 한국(신규)	파나마(2013), 코스타리카(2013), 이스라엘(2013)	터키, 일본, 중국

주1 :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4개국이 결성한 공동체(베네수엘라 2006년 탈퇴)
주2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
주3 : 중남미 국가와의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무역특혜협정)는 제외함
자료 :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http://sice.oas.org)

1)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4개국이 결성한 공동체('12. 6월 출범)

02. 한 · 콜롬비아 무역 동향

◉ 양국 무역액은 2006년 10억 달러 대에 진입한 이후 2014년에 20억 달러를 초과했으나 2015년에는 14.5억 달러로 31.4% 급감

- 對콜롬비아 수출은 2011년 1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후 주력 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합성수지 등의 부진으로 2015년 11.3억 달러로 감소
- 對콜롬비아 수입은 2014년 6.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원유 및 기초 철강·금속의 수입 급감으로 2015년에는 수입액이 절반 가까이 축소

· 한국 무역에서 콜롬비아 위치(2015년)

	순위	비중(%)
무역	59위 (63위)	0.33 (0.13)
수출	52위 (53위)	0.21 (0.19)
수입	63위 (68위)	0.07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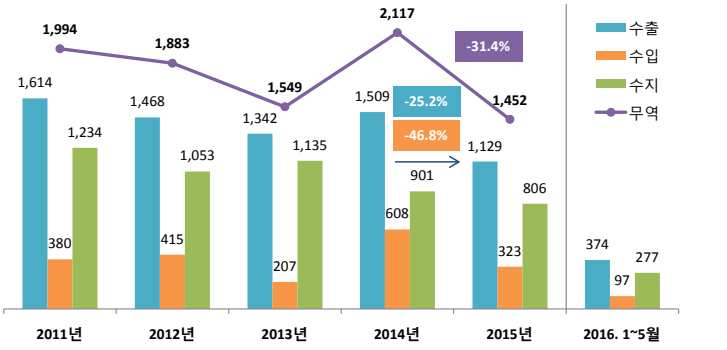
· 콜롬비아 무역에서 한국 위치(2015년)

	순위	비중(%)
무역	15위	1.54
수출	29위	0.64
수입	9위	2.14

주 : ( )는 2016. 1~5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콜롬비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우리나라는 2015년 중 콜롬비아의 제9위 수입국으로 2001년부터 꾸준히 2%대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상위 5개 수입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4개국과 FTA를 모두 발효

  * 미국('12.5월), 멕시코('95.1월), 독일('13.8월), 브라질('05.5월)

  - 7위 수입국인 일본과는 FTA 협상을 진행('16.4월, 14차) 중이며, 중국은 콜롬비아 측에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음

콜롬비아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24.9	24.1	27.5	28.4	28.7
2	중국	15.0	16.6	17.5	18.4	18.6
3	멕시코	11.1	10.9	9.3	8.2	7.1
4	독일	4.1	3.8	3.7	4.0	4.2
5	브라질	5.0	4.8	4.4	3.9	3.9
6	프랑스	3.3	1.9	2.4	2.9	3.5
7	일본	2.6	2.8	2.5	2.4	2.3
8	인도	1.8	1.9	1.9	2.1	2.2
9	**한국**	**2.3**	**2.2**	**2.2**	**2.3**	**2.1**

주 : 순위는 2015년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 한국은 제조 공산품, 콜롬비아는 1차산품(원유, 광산물, 농산물)을 수출하여 상호보완적인 산업간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 모두 소수품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비중 25.1%), 자동차부품(13.1%), 합성수지(7.2%) 등이며,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68.7%를 차지
- 對콜롬비아 수입은 커피류(36.1%)와 동괴·스크랩(20.6%), 합금철(17.5%), 유연탄(10.3%) 등 1차산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5개 품목의 수입 비중이 89.7%를 차지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2014	2015	2016. 1~5월			품목명	2014	2015	2016. 1~5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승용차	389	330	94	-37.1	25.1	커피류	83	92	35	-7.8	36.1
자동차부품	156	119	49	-13.0	13.1	동괴·스크랩	17	44	20	34.2	20.6
합성수지	149	93	27	-39.6	7.2	합금철	89	47	17	-18.3	17.5
타이어	83	48	18	-7.9	4.8	유연탄	2	4	10	595.9	10.3
기타석유화학제품	57	56	16	-45.9	4.3	농약	10	14	5	-30.7	5.2
공기조절기	18	14	15	112.3	4.0	화초류	5	5	3	11.1	3.1
의약품	21	23	13	12.1	3.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	7	2	-33.2	2.1
아연도강판	27	25	10	-18.0	2.7	무선통신기기부품	1	1	1	116.1	1.0
섬유기계	29	19	8	-25.6	2.1	당류	2	2	1	12.7	1.0
기타플라스틱제품	18	20	7	-8.2	1.9	꿀 및 로얄제리	1	1	0	352.7	0.0
소계	947	747	257	-26.3	68.7	소계	221	217	94	5.1	96.9
총계	1,509	1,129	374	-24.8	100.0	총계	608	323	97	-29.3	100.0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한·콜롬비아 FTA 발효, 양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 티토 피니야 주한콜롬비아대사 서면 인터뷰

Q1. 콜롬비아의 對한국 수출 기대 품목은?

A.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목인 커피, 원유, 광물을 비롯하여 협정 발효 후 단기적으로 코코아 및 관련 제품, 가공 처리된 과일, 가죽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관세지만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품목인 유기화학물질, 페인트 및 안료, 왁스류 등의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Q2. 한국 수입업체에게 추천하고 싶은 품목은?

A. 최근 콜롬비아는 망고, 아보카도, 퀴노아(quinoa), 아마존 과일(amazonic fruits), 피타야(pitahaya), 골든베리(golden berry) 주요 생산국으로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농산물 수입업체들이 한·콜롬비아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Q3. 콜롬비아 정부의 투자 육성 분야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는?

A.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제조업, 농업, 관광 서비스,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FTA를 통해 양국 간 투자 증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우수한 한국 선진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03. 한 · 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 양국은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6.1%, 콜롬비아는 96.7%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콜롬비아는 발효 즉시 품목수 기준 60.6%, 5년 내 82.5%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공산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에 대해 콜롬비아가 기체결한 FTA(미국, EU 등)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여 시장경쟁력이 강화됨
- 한국은 품목수 기준 82.4%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90.3%까지 철폐 예정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농산물 151개(품목수 기준 10.0%) 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였으며, 여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영향을 최소화함
    *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FTA 협정에서 배제되어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한·콜롬비아 FTA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개,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 양허				콜롬비아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	9,787	82.4	85.8	66.9	4,390	60.6	283.5	34.1
무관세	1,932	16.3	36.2	28.3	265	3.7	31.2	3.7
3년	268	2.3	3.8	3.0	33	0.5	1.4	0.2
5년	670	5.6	37.3	29.1	1,547	21.4	176.3	21.2
(5년 소계)	10,725	90.3	126.9	99.0	5,970	82.5	461.3	55.5
7년	136	1.1	1.3	1.0	503	7.0	37.3	4.5
9년					1	0.0	41.2	5.0
10년	558	4.7	0.03	0.0	529	7.3	273.8	32.9
(10년 소계)	11,419	96.1	128.2	100.0	7,003	96.7	813.6	97.8
10년 초과	304	2.6	0.02	0.0	184	2.5	15.3	2.2
TRQ	5	0.0	0	0.0	6	0.1	0	0.0
양허 제외	153	1.3	0.006	0.0	47	0.7	0	0.0
총 합계	11,881	100.0	128.2	100.0	7,240	100.0	831.9	100.0

주1 : 품목수는 한국은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는 HTSC 2007 10단위 기준(단, 농산물은 8단위)
주2 : 수입액은 2007~2009 3개년 평균
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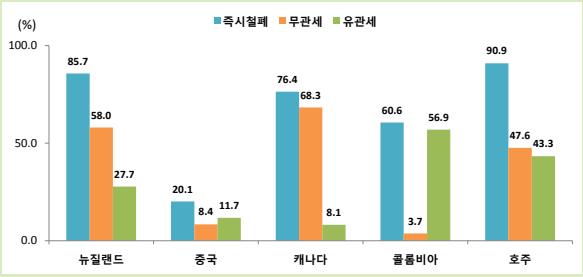
한·콜롬비아 FTA의 특징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

콜롬비아의 즉시 철폐 4,390개 품목 중 유관세 품목이 4,125개로 전체의 56.9%를 차지(품목수 기준)

호주(43.3%), 뉴질랜드(27.7%), 중국(11.7%), 캐나다(8.1%) FTA와 비교했을 때 콜롬비아의 유관세 즉시 철폐 품목 비중이 높게 나타남

협정별 즉시 철폐 품목 중 무·유관세 비중 비교



자료 : 관계부처합동 각국 FTA 상세설명자료

◉ 콜롬비아 측의 MFN 관세 대폭 인하조치(2010년)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FTA 특혜이익 상실문제가 해결됨

- ‘FTA 세율 〉 MFN 세율’ 기간 동안 MFN보다 0.5%p 낮은 특혜세율 적용
  - 특혜세율 산정 : MFN 세율 - 0.5%p
  - 대상 품목 : 1년에서 최대 4년간 FTA 특혜를 상실하는 총 2,232개 비농산물 품목
    * 1년(a) 734개, 2년(b) 1,244개, 3년(c) 253개, 4년(d) 1개

사례 버스·화물차용 래디알 타이어(HS 4011201000) : 기준세율 15%, 5년 관세철폐 양허

버스·화물차용 래디알 타이어 (HS 4011201000)	FTA 발효 전	1년차(a)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MFN 세율	10	10	10	10	10	10
FTA 세율	15	12	9	6	3	0
특혜세율 적용	-	9.5(=10-0.5)	9	6	3	0

◉ 양허구간별로는 對콜롬비아 주력 수출품 중 합성수지는 즉시 철폐, 타이어, 철강제품 및 자동차 부품은 5년, 승용차는 10년 간 철폐 예정

- 對콜롬비아 최대 수출품으로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35%)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수출 감소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타이어, 자동차부품 등은 5년 내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전망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10	품목명	對한국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	기준 세율	MFN	양허 유형	비고[1)]
		2013	2014	2015					
8703239090	기타 가솔린승용차 (1,500cc 초과 - 3,000cc 이하)	225.0	230.6	172.7	12.1	35	35	10년	
8703229090	기타 가솔린승용차 (1,000cc 초과 - 1,500cc 이하)	110.7	104.3	90.6	19.7	35	35	10년	
4011201000	버스·화물차용 래디알 타이어	53.3	62.3	33.8	18.1	15	10	5년	a
8906100000	군함	0	64.4	31.6	73.0	5	5	즉시	
9306901100	폭탄, 수류탄 등 발사체	1.7	16.3	25.0	75.5	20	15	5년	a
8703210090	사륜구동 가솔린승용차 (1,000cc 이하)	29.1	27.2	23.6	25.2	35	35	10년	
8450200000	세탁기(세탁용량 10Kg 초과)	38.2	30.0	19.1	13.1	15	10	12년	d
4011101000	승용차용 타이어	14.4	18.6	12.0	6.9	15	10	5년	a
8703231090	4륜구동 가솔린승용차 (1,500cc 초과 - 3,000cc 이하)	26.9	16.6	11.9	5.2	35	35	10년	
7210709000	페인팅·바시니·플라스틱 도포 평판압연제품	12.2	12.3	86.0	66.4	10	5	5년	b

주1 : a는 1년, b는 2년, c는 3년, d는 4년 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 세율을 적용
주2 :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콜롬비아 양허안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한·콜롬비아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양국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동일한 양식에 따라 발급
-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칠레	싱가포르	EFTA/ EU/터키	아세안/인도 베트남/중국	페루	미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증명방식	자율	기관	자율	기관	기관/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서식	통일 서식	양국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방식	통일 서식	통일 서식	자율 (권고 서식)	표준 서식	송품장/ 표준 서식	**통일 서식**

자료 : FTA별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04. 한 · 콜롬비아 FTA 수출 유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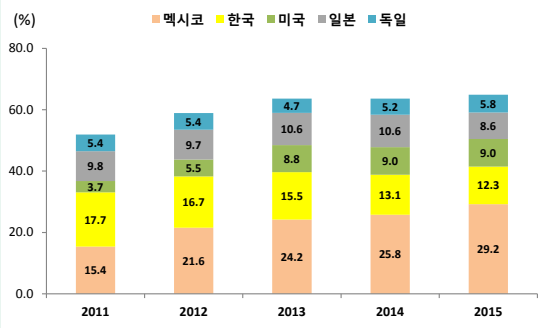
◉ (승용차) 미국, 독일, 멕시코가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여 한국산 승용차의 경쟁열위가 심화되었으나 이번 한·콜롬비아 FTA를 계기로 한국의 시장점유율 회복이 기대

- 한국산 승용차(HS 8703) 점유율은 2011년 17.7%에서 2015년 12.3%로 크게 하락한 반면, 미국은 2012년, 독일(EU)은 2013년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점유율 상승

  * 미국산 승용차 관세율/점유율(%) : 35/3.7('11)→31.5/5.5('12)→28/8.8('13)→24.5/9.0('14)→21/9.0('15)
  독일산 승용차 관세율/점유율(%) : 35/5.4('11)→35/5.4('12)→30.6/4.7('13)→26.2/5.2('14)→21.8/5.8('15)

- 멕시코산 자동차는 2007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2015년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이 29.2%에 달함

주요국 콜롬비아 승용차 수입시장 점유율



주 :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수입 제외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요국의 콜롬비아 승용차 관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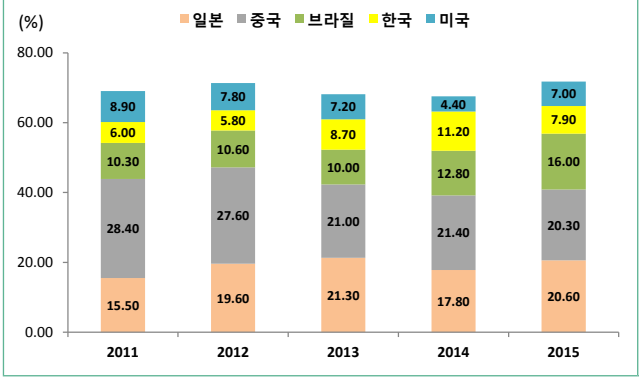
국가	발효 시기	'11	'12	'13	'14	'15	'16	철폐 시점
멕시코	2007	0.0	0.0	0.0	0.0	0.0	0.0	2007
한국	2016	35.0	35.0	35.0	35.0	35.0	31.5	2025
일본	미체결	35.0	35.0	35.0	35.0	35.0	35.0	-
미국	2012	35.0	31.5	28.0	24.5	21.0	17.5	2021
독일	2013	35.0	35.0	30.6	26.2	21.8	17.5	2020

자료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 (타이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한자릿대에 불과하여 브라질,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컸으나 5년 내 관세철폐[2]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판매확대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타이어(HS 4011) 수입시장의 상위 5개국 중 브라질(2005년)과 미국(2012년)이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여 무관세 적용

주요국 콜롬비아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 Global Trade Atlas

타이어 세부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쥴

(단위 : %)

HS10	기준세율	MFN	관세철폐	비고
4011101000	15	10	5년철폐	a
4011109000	15	10	7년철폐	b
4011201000	15	10	5년철폐	a

주 : 2010년 이후 對콜롬비아 수출 실적 있는 제품
자료 : 콜롬비아 양허안

◉ (기타) 콜롬비아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음료, 금속제품 등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음료) 알로에음료 등 기타 비알콜음료(HS 2202900000)가 최근 연평균 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 FTA 발효로 15%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경제 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콜롬비아 비알콜음료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 비알콜음료 판매액/증가율[3](10억 페소, %) : 4,030.5/4.0('13)→ 4,343.4/7.8('14)→ 4,677.5/7.7('15) → 5,014.4/7.2('16f)→ 5,383.4/7.4('17f)

● (금속제품) 평판압연(HS 7209160000, HS 7225920090) 제품, 기타 철강구조물·부분품(HS 7308909000) 등에 부과되던 5~1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05. 결론 및 시사점

◉ 콜롬비아는 원유, 석탄, 커피 등 1차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공산품의 고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가 기대됨

◉ 협정 발효 10년 이내 대부분의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아직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해야 함

2)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력 수출품목인 HS 4011101000, HS 4011201000에 한함. 기타 타이어는 즉시, 5년, 7년 철폐로 구분됨
3) BMI Industry Forecast - Drink - Colombia Q3 2016 참조. f는 전망치

부록

對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분류	HS10	품목명	대세계 수입 (2015)	연평균 증가율 ('13-'15)	대한국 수입 (2015)	한국의 점유율	경쟁국[2] 점유율	기준 세율	MFN	양허 유형	비고[1]
음료	2202900000	기타 비알콜음료(주스 제외)	34.4	31.9	2.2	6.4	미국 (21.3)	15	15	0	
화학 제품	3918101000	플라스틱 바닥깔개	11.7	11.6	1.6	13.9	중국 (45.2)	20	10	5	b
	3920620090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 제품	10.7	13.3	2.4	22.8	페루 (26.8)	20	10	7	c
금속 제품	7209160000	평판압연제품 (두께 1㎜ 초과 - 3㎜ 미만)	59.0	-	7.8	13.2	중국 (65.4)	10	5	5	b
	7209170090	폭 60㎝ 이상 냉간압연 (두께 0.5㎜ 이상 - 1㎜ 이하)	43.7	74.7	5.8	13.3	중국 (61.0)	10	5	5	b
	722592009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아연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5.0	86.8	2.2	6.2	중국 (49.3)	10	5	5	b
	7228300000	기타 봉 (열간압연, 열간인발, 압출 보다 가공하지 않은 것)	60.9	39.2	1.3	2.1	터키 (64.3)	10	5	0	
	7308909000	기타 철강 구조물 및 부분품	30.0	24.5	0.7	2.3	중국 (43.8)	15	10	7	b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10.1	10.4	0.8	7.6	중국 (28.2)	15	5	5	c
기계	8421399000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	47.5	19.7	1.7	3.5	미국 (62.9)	15	10	5	a
	8428109000	기타 리프트	48.3	16.5	2.5	5.2	중국 (67.7)	15	10	7	b
수송 기기	8708301000	기타 자동차 제동장치 및 부품	17.9	10.6	1.7	9.7	중국 (34.6)	15	10	5	a
	8708809090	기타 서스펜션 시스템 및 부품	35.2	13.0	1.5	4.4	미국 (8.3)	10	5	5	b

주1 : a는 1년, b는 2년, c는 3년, d는 4년 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 세율을 적용
주2 : 경쟁국 점유율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 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주3 : HS 7209160000은 2012~2013년에는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2014년에 6,449만 달러, 2015년에 5,897만 달러를 기록
주4 : HS 2202900000, HS 8708809090은 콜롬비아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점유율 2위 국가의 점유율을 표시
주5 : 한·콜롬비아 FTA 양허안은 HS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양허안과 수입 통계 데이터 연계 시 일부 HS코드에 대해 불일치 문제 발생. 이에 콜롬비아 세무관세청의 관세율 DB 및 HS 코드 변경 이력을 종합하여 자료 간 오차 최소화
자료 :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세무관세청(www.dian.gov.co), 콜롬비아 양허안

수출 유망품목 선정 기준

① 콜롬비아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15년)
②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13~'15년)
③ 對한국 수입 50만 달러 이상('15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참고 콜롬비아 경제 현황(2015년)

	명목 GDP(십억 달러)	경제성장률(%)	1인당 GDP(달러)	인구(백만 명)
콜롬비아	293	3.1	6,084	48
한국	1,377	2.6	27,195	51

자료 : IMF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원 민경실 (02-6000-5498, ksmin23@kita.net)